



# 쓰시마마루 기념관

Tsushimamaru Memorial Museum

미래에 전하고 싶은  
'평화를 향한 마음'



- **개관시간** 9:00~17:00(입관은16:30까지)
- **휴 관 일** 매주 목요일·연말연시(12월31일-1월3일)
- **입 장 료** 어른 500엔/ 중·고등학생 300엔/ 초등학생 100엔/ 단체 (20명 이상 10% 할인)
- **교통수단** 모노레일... 모노레일 '겐초마에 역' 하차 후 도보 18분  
시내버스... 번호 1, 2, 3, 5, 15, 45

니신조(西武門) 혹은 구메유빈교우마에(久米郵便局前)에서 하차 후 도보 5분입니다.

\* 저희 기념관의 입구는 2층입니다. 계단을 이용하시기 곤란한 분께서는 1층 출구로부터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1층 출구 이용 시 인터폰으로 직원을 불러주시시오. (휠체어 5대 비치)

쓰시마마루 기념관  
沖繩県那覇市若狭 1-25-37  
1-25-37 Wakasa, Naha-city, Okinawa, Japan.  
TEL : 098-941-3515 FAX : 098-863-3683  
e-mail : info@tsushimamaru.or.jp  
http://www.tsushimamaru.or.jp



## 지금 ‘쓰시마마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저희들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쓰시마마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전쟁? 아니면 평화일까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야기해 줬으면 하는 것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해서입니다.

암울하고 힘겨웠던 전쟁의 시절에도  
‘꿈’을 가질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 있어야 ‘꿈’을 꾸고 이를 수 있습니다.

희생된 그들의 잃어버린 ‘꿈’

그들이 품었던 미래를 향한 ‘꿈’

저희들은 그 ‘꿈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기념관에 오셔서 직접 느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는 희생자들의 수와 비교해

유품 등의 ‘물건’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흘러서일까요?

그 기억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일까요?

오키나와는 전쟁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불에 타고 초토화되었습니다.

형태가 있는 것은 모조리 불에 타 없어졌지만

사람들의 ‘뜻’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뜻’이란,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희망’입니다.

전쟁을 이야기할 때, 슬픔과 원망이 꼭 생겨납니다.

슬픔의 크기를 ‘희망’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원망이 보복을 부르고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부릅니다.

그러나 보복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면 슬픔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지금 ‘쓰시마마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에서 반복되는 보복행위가

아이들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 보복의 악순환을 단절하는 노력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쓰시마마루를 탄 아이들이

우리에게 던진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4년8월22일 재단법인 쓰시마마루 기념관





# 선생님 살려주세요!

## 쓰시마마루가 격침된 사건이란

### 승선, 격침...그리고

1944년, 전쟁이 격렬해지자 노인과 어린이, 여성들은 국가 명령으로 안전한 곳으로 소개(疏開)를 가게 되었습니다. 쓰시마마루는 많은 어린 학생들을 태우고 8월 21일 나하항(那覇港)을 출항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그 다음 날인 22일 오후 10시를 지나서, 쓰시마마루는 가고시마현 도카라열도 아쿠세키섬(悪石島) 앞바다에서 미 해군 잠수함 보우핀호의 어뢰 공격으로 격침되었습니다. 선원과 병사를 포함한 승선자 1788명 중 약 80%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



**쓰시마마루**  
오키나와 전 지역에서 모여든 어린 학생·일반소개자(疏開者) 함께 1,661명이 승선했다고 합니다



2층 제1 전시실



### 뗏목을 타고 표류

끝없는 어둠이 펼쳐지는 한밤중, 바다에 내동댕이쳐진 승선자는 공포에 떨면서 필사적으로 불을 붙이고 늘어서 살아남으려고 하였습니다. 생존자의 기억을 바탕으로 재현된 실물모형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생존자가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그린 그림



쓰시마마루의 항로도와 쓰시마마루를 격침한 미군의 기록, 미군이 방수(傍受)한 쓰시마마루의 전보문, 해독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 함구령(箝口令)이 낳은 새로운 고통

### “말하지 마!”

당시 일본에서는 군의 기밀에 관한 내용을 공격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함구령이 내려진 것을 뒷받침하는 편지. 사건으로부터 9일 후, 오키나와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쓰시마마루 격침과 생존을 알린 내용. “한 줄이라도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크비입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 10·10 공습

### 남겨진 이들에게 닥친 참사. 모조리 타버린 나하의 거리.

쓰시마마루 격침 사건으로부터 49일째가 되는 1944년 10월 10일, 나하를 중심으로한 오키나와의 많은 섬은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미군 기동부대로부터 무차별 폭격을 당했습니다.

# 살아 있었던 너를 잊지 않으리

## 희생자 영정사진과 유품

많은 희생자 수와 비교해 남아있는 영정사진과 유품들이 적은 것이 이 기념관의 특징입니다. 영정사진과 유품은 희생자들이 살아 있었던 것을 증명할 뿐더러, 소중한 가족과 친구를 잃고 만 사람들이 아끼는 추억이기도 합니다. 남아있는 물건에 담긴 여러 감정을 느껴보십시오.



## 즐거웠던 학교에도 군국화(軍國化)의 물결이

희생된 어린 학생들이 짧은 인생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교실을 재현하였습니다. 당시 어린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떠올리게 하는 교과서, 공책, 잡지와 주사위놀이 등의 장난감에서도 당시의 전시(戰時)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 1944년의 어린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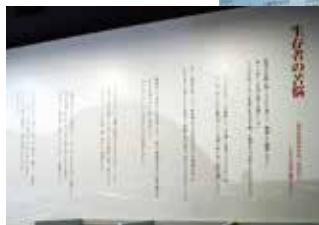
1층 제2 전시실



시청 코너

## 애들아, 어서 돌아와

희생자들의 영혼이 해매는 일 없이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당시 학교와 교향 모습을 배경으로 희생자 이름을 새겼습니다. 맞은편에는 '아쿠세키섬: 悪石島'의 모양을 배경으로 생존자의 고뇌를 토로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1층 제2 전시실

## 오кина와의 어린 학생들의 '소개(疎開)'



소개(疎開)한 도마리 국민 학교 (당시 초등학교)의 어린 학생들

전쟁이 격렬해지자 국가명령에 의해 노인과 여성, 어린이를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지방으로 피난시키는 것을 '소개(疎開)'라고 합니다. 오кина와에서는 학교단위의 규모로 집단 소개하였으므로 '학동집단소개(學童集團疎開)'라고 불리었습니다.

## 야산, 히산, 시카라산 (쫄주리고, 춤고, 외로워요)



오кина와에 남아 있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재현자는 "쫄주리고, 춤고, 외로워요." 라고 소개생활(疎開生活)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아이들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쓰시마마루를 평화의 길잡이로

## 쓰시마마루를 탄 아이들과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쓰시마마루를 평화의 길잡이로 하고자 하는 열원은 어린이를 주체로 한 활동 속에서 각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파도 사이를 헤매는 희생자들의 영혼들을 위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쓰시마마루 사건을 중심으로 한 평화활동의 모습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매년 6월에 진행되는 '고자쿠라의 탑(小桜の塔)'의 청소활동과 쓰시마마루 연극을 통해 전쟁의 무서움과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는 '평화학습'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가져다주는 슬픈 사실을 잊지 않으며 평화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위령제에서 평화를 바라며 나비를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각지의 소학교 학예회에서는 평화학습의 일환으로 '쓰시마마루' 연극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우리들은 지금으로부터 60년 이상 전에 전쟁이 계속되던 시대에 태어났어.  
오키나와가 위협해지자  
우리들은 규슈로 이동하려고 하였지만  
그때 탄 배 '쓰시마마루'는  
미국 잠수함의 공격을 받아 가라앉았다.  
바다에 내동댕이쳐진 친구 중엔  
가까스로 살아남은 아이도 있었어.  
하지만 우리처럼 파도에 휩쓸려 힘을 다 소진하여  
바다에 가라앉고 만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지.  
우리들은 지금도 그대로  
너희 눈앞에 끝없이 펼쳐지는 그 바다에 있단다.

우리들은 왜 죽을 수 밖에 없었을까?  
우리들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

우리가 겪은 괴로움을 다른 아이들이  
두번 다시는 겪지 않도록  
지금 우리들에게 약속해 줬으면 좋겠어.  
꼭 평화롭게 살아가겠다고.





'쓰시마마루'에 관한 확실한 데이터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자세한 피해실태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쓰시마마루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 쓰시마마루 승선자

### 1,661명

'쓰시마마루 기념관 조사 데이터' 2005년 7월 27일 현재

	승선자	희생자	생존자	
소개자 (疎開者)	학동(學童: 어린 학생들)	834	775	59
	인솔·일반	827	709	118
	계	<b>1,661</b>	1,484	177
선원	86	24	62	
선박 포병 대원	41	21	20	
합계	<b>1,788</b>			

## 2 쓰시마마루 격침으로 인한 희생자

[성명 판별자 수]

소개자 (疎開者)	학동(學童: 어린 학생들)	780명
	선생님·보호자	30명
	일반소개(一般疎開)	627명
선원	24명	
선박 포병 대원	21명	
합계	<b>1,482명</b>	

\* 단, 상기의 숫자는 유가족의 신고가 있을 시 더욱더 늘어납니다. [2012년 8월 22일 재계정]

## 3 쓰시마마루 사건 생존자 수

- (1) 실질적인 생존자 수는 '불명확'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승선자 1,661명과 희생자 1,482명이란 숫자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출항 당시에 아침이 되어서 갑자기 승선을 중지하거나 반대로 타기 싫어하는 아이를 억지로 태운 부모도 있었으며 어느 시점에서 '1,661명'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승선자-희생자=생존자라는 계산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 (2) 지금까지 간행된 책들에 실려온 '어린 학생 59명을 포함한 177명이 살아남았습니다.'란 숫자는 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숫자는 1961년 오시로 다쓰히로(大城立裕) 외 다수 저자가 쓴 『아쿠세키섬(悪石島)』이란 책에 실려 있는데 오시로 씨가 '청취조사를 한 그 당시에 생존자가 그만큼 있었다는 것일 뿐, 정확한 숫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 (3) 단, 지금까지 발굴된 자료 중에서 아래의 숫자를 읽어낼 수는 있습니다. 대략적인 기준으로 삼아 주십시오.

쓰시마마루  
사건 생존자 수

어선·초계선으로 구조된 소개자(疎開者) ..... 177명  
 선원·포병 ..... 82명  
 아미미오시마(奄美大島)로 표착하여 구조된 사람 ..... 21명  
 합계 ..... 280명



## 쓰시마마루 희생자의 위령비 고자쿠라의 탑(小桜の塔)

일본 아이치현(愛知県)에 소재한 '스즈시로 어린이회(당시 회장: 가와이 가쓰라 河合桂)'에 소속된 아이들이 오키나와의 어린이를 위한 위령비를 세우기 위해 1엔 모금을 시작한 것이 '고자쿠라의 탑(小桜の塔)' 건립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후 아이치현(愛知県)지사를 비롯해 많은 사람의 협력으로 모여진 원조금이 오키나와에 보내어졌습니다. 위령비 건립에는 하조산 호국사(波上山護國寺)의 주지인 나코호쇼(名幸芳章) 대승정이 진력하였으며, 1954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서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탑(塔)에 새겨진 배(船)의 머리는 나하항(那覇港)을 향하고 있으며, 아사히가오카 공원(旭ヶ丘公園) 전망대를 사이로 하여 쓰시마마루 기념관 반대편에 지어져 있습니다.

[디자인: 다마하 마사요시(玉那覇正吉)씨]



고자쿠라의 탑 상부에 있는 오리지널 비둘기 석고상